

2011.01.17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, 직접지불금 건전성 강화 위한 법규 공포

1. USDA(2011.01.07) 주요 내용

- 미농무성 농업진흥청(FSA; Farm Service Agency)은 **직접지불금의 오지급**을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고,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불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법규(Final rule)를 공포함.
 - 이번 최종 법규에 따르면 현재 2%에 달하는 오지급율을 0.1%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보다 자세한 세부 항목에 관한 내용은 FSA 홈페이지 참조
- 지난 2007년 미국 회계감사원(US GAO)의 감사 결과, 대부분의 직접지불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혀졌으나,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음. 그 후로 농업진흥청에서 직접지불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음.
 - 미 농무부는 생산자가 이미 사망했다라도 상속된 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.
- 새로 공포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USDA에서 매 분기별로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FSA프로그램의 직접지불금 수령인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, 사망한 수령인에 대한 조사는 주별 농업진흥청 지소에서 담당함.
 - **직접지불금 수령인은 사망 이전에 그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, 사망 이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지불되며, 사망 이후에는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**

2. 시사점

- 국내에서도 직접지불제가 도입된 이래 직불금의 오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, 향후 제도 보완 시 참고 및 활용 필요

□ 독일, 다이옥신 오염된 축산물 유통 전면 금지

1. Financial Times(2011.01.07) 주요 내용

- 독일 전역에서 고농도의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 사료가 급여된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중단됨.

* 다이옥신은 제련이나 제지생산 등의 공업 생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결합 생산물로,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.
 * 다량의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피부 병변을 유발할 수 있고,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 면역체계 및 내분비계에 치명적이며, 동물 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.

- 독일 농업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지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전국 4,700 농가 이상의 육류 및 계란 유통을 전면 금지시킴.
- Lower Saxony에서는 현재까지 다이옥신 검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10만 개 이상의 계란을 폐기처분함.
 - 이번 사태로 EU의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됨.
- 독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는 **한국과 슬로바키아에도 축산물 수출을 중단**하였으며,
 -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오염된 축산물이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조사 중이나, 이미 영국에서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그 파장이 커지고 있음.
- 이번 오염사고의 원인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Harles & Jentsch GmbH사에서 축산 사료와 공업 생산물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됨.
- 독일 정부와 EU는 다음주 중으로,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제조 과정에서 공업 생산물과 축산 사료의 혼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.
 - 또한 독일 농업부 Ilse Aigner 장관은 피해농가 보상 및 EU 전역의 식품 및 사료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